

협업이 수라상을 차린다!

인간은 왜 모여서 살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다. 개인의 경제활동이 그러한데 기업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서로 경쟁할 때가 많지만 경쟁사끼리도 때로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다. 서로 서로 좀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나누기 위해 손을 잡는 '전략적 제휴'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제 기업환경은 일시적 제휴가 아닌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 협업이 대세다

전미옥 마이스토리 대표

ICT가 서로서로 손잡게 한다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다. 1인 가구가 늘고 이른바 사회적 기준의 결혼 적령기를 넘어선 사람들이 싱글라이프를 이어가면서, '혼밥', '혼술'이라는 신조어는 이제 낯설지 않은 보통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핵가족화를 넘어서 가족의 해체, 개인주의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혼자 살 수는 없다.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삶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며 서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은 개인의 삶보다 오히려 산업과 산업간, 업종과 업종 간의 벽이 사라지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한층 좁혔다. 그럴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의 바닥기술이 될 ICT가 산업 전반을 연결

시키기 때문이다. 전 산업 분야에 과학 기술 기반의 ICT 기술이 녹아 들어갈 것이다. 기계 분야만 해도 ICT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등의 산업과 직결되는데, 자율주행차가 성공하려면 자동차 한 대를 잘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밀 지도 등 핵심 IT기술은 물론 도로 체계 등 교통 및 통신망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산업의 핵심키워드가 되는 '융합'은 결국 협업이다. 모든 산업이 성장하려면 이런 방식이 될 것이다. ICT 분야만 별도로 떼어놓고는 성과를 볼 수 없고 이 기술을 산업에 응용해야 한다.

세상은 앞으로 더욱 '지구촌'이라는 말을 점점 더 온전히 구현하게 될 것이다. 네트워크 세상이다. IT 기술, ICT 같은 과학 기술로 혼자 살아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 연결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어 하나의 행동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동시에 받게 된다. 산업간 협업을 통해 산해진미가 가득한 임금님의 수라상을 맛보는 것 같은 기술의 산해진미를 맛보는 날이 코앞으로 와 있다. 우리도 더욱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

동등한 파트너십이 상생이다

독일은 제조업이 발달한 수출주도형 국가다. 작지만 탄탄하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누군가는 '제조업의 시대는 이미 죽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무섭게 4차 산업혁명 주도국가가 되고 있는 독일의 협업을 통한 제조업 살리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 기반의 독일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프로젝트다. 핵심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단순한 자동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효율적인 수요 파악 및 물류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의사소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스마트산업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말하며, 사물인터넷으로 제조업을 재정의했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축으로 중소기업들이 '협력회사' 형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우리만의 의사소통 모델을 통해 이 비즈니스 환경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휘를 무작정 받으며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갑과 을의 관계로 설정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고 동등한 파트너십을 회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은 야무진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정당하게 대접해야 하고, 서로 비즈니스 룰을 잘 지키며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협업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끼리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자고 들면, 그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가치관이 부딪히고 일하는 스타일에서 어긋난다. 약하고 작은 쪽이 억울하지 않아야 하지만, 크고 강한 쪽이 늘 양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 결론은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로 잠시의 평화나 매끄러운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큰 시각차, 좁혀지지 않는 인식 차를 줄이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에 공을 들이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둘이지만 하나 되어 서로 상생하는 조직문화를 일구어갈 수 있다. 기술의 성공적 안착, 협업의 성패는 기술력 그 자체보다 사람 간, 조직 간 따뜻한 소통에 달렸다. TTA